

전일동향

전일대비 6.70원 상승한 1,369.40원에 마감

18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6.70원 상승한 1,369.4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7.20원 상승한 1,379.90원에 개장했다. 미국의 중동분쟁 개입 우려에 환율은 1,380.00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다만, 국내증시 강세 및 네고 물량 출회에 환율은 상승폭을 축소하며, 1,369.4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11.4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5.20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79.90	1380.00	1368.60	1369.40	1373.20
	엔화	937.64	950.34	936.95	943.47	-
	유로화	1564.30	1584.54	1563.42	1571.73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02	-6.9	-15.51	-30.29
	결제환율(수입)	-0.7	-5.86	-13.72	-26.95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매파적 FOMC에...1,370원대 초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7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69.40) 대비 5.75원 상승한 1,372.4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중동 갈등 지속 및 매파적 FOMC 결과를 소화하며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발언에 따른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에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으나, 6월 FOMC 결과 등에 소폭 상승해 98.89pt로 마감했다. 한편 연준은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점도표상 연말 금리 전망치도 유지했다.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관세로 인해 일부 상품 가격이 상승했으나 물가 상승 압력이 시차를 두고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금리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경계 발언에 미 국채 금리와 뉴욕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금일 환율은 파월 의장의 매파적 스탠스에 따른 달러 강세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결제 등 달러 실수요 매수도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소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내증시 호조 및 반기말을 앞둔 수출업체 네고 물량 등에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68.60 ~ 1378.00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870.48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75원 ↑
	■ 美 다우지수 : 42171.66, -44.14p(-0.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4.7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2809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